

(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1차 회의록

일시 12/5(월) 13:3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참석 김기민(*성북동천), 김정연(마을지원활동가), 김종건(길음1동마을계획단장), 김희자(정릉2동마을계획단장), 박영기(수경재배네트워크), 박정근(정릉아리랑시장상인회/성북구민견지우연합회), 박정애(사단법인전국독서새물결모임), 서정례(*함께하는성북마당), 송민기(*혁신교육추진단), 이선영(개인), 유제훈(보문동마을계획단), 윤정현(서울시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정우연(신나게놀자), 황선영(월곡2동 마을계획단), 홍수만(*성북마을살이연구회) 등 16명 (*는 단체 내부에서 추진단 공식 참여를 결정한 곳)
참관 성북구청 윤진호(협치조정관), 김종표(협치지원관), 은현기(마을기획팀장), 전미희(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실장), 박영주(찾동 마을팀장)
기록 김기민, 최조향(찾동 복지팀장)

- 안건지 및 자료 공유 (별첨)
 - SIG 보고서 : 협력적 거버넌스(협치)에 대한 이해 1
 - 시민참여 좋은 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 회의 성립 및 의결 조건
 - 총원 23 (추진단 대화방 참여인원 기준)
 - 과반수(12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
 - 참석 인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록 공개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어디
 - 회의록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 추가 개설하여 마을사경센터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방안 협의해보면 좋겠다. (김정연) - 전미희 마을공동체실장 확인하기로
 -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업로드하지는 않고 행사 등 안내, 공지할 때 이용하기로. 대신 안내 공지시 (게시판 개설되었다면) 게시판 안내 할 것. (김정연)
- 준비위원회 의장 및 간사 선출

- 김정연 : 간사는 1인인지?
- 홍수만 : 인원도 여기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의장 간사 모두 인원 협의해서 결정.
- 김희자 : 준비위원회니까 굳이 부의장 없이 의장 1명, 간사 1명으로 충분.
- 박정근 : 의장 1인, 부의장 2인(남여), 간사 이렇게 되어야.
- 박정애 : 일 하면서 하다 보니 빠지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인원이 좀 더 충분히 많아야 할 것 같다.
- 박정근 : 임원진이 소수인 것보다는 여러 명 선출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김기민 : 모든 인원이 준비위원이다. 모든 회의에 참석하셔야. 임원진이 두텁게 있으면 그 분들께 위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 김희자 : 준비위원은 디딤돌. 첫 단추 끼어야 한다. 임원진 너무 많다 보면 여러 흐름으로 갈릴 수가 있어서 간명하게 가는 게 좋겠다.
- 김정연 : 명칭, 직함이 중요한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결정할 수 있다.
- 결정 : 의장 1 / 부의장 1 / 간사 1 등 총 3인
- 박정근, 김희자 : 홍수만 준비위원회 의장, 김희자 부의장, 김기민 간사
- 황선영, 서정례 : 동의합니다.
- 송민기 : 제청합니다.
- 김기민 : 김희자 의장, 김정연 부의장, 홍수만 간사 추천
- 표결 결과 홍수만 의장, 김희자 부의장, 김기민 간사 선출
- 홍수만 : 의장직 맡기로. 회의 주재, 진행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자 : 부의장직 맡기로. 정식으로 가기 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 김기민 : 간사 맡기로. 향후 정식할 때는 여기 계신 더 많은 분들이 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목적 및 구성

- 홍수만(의장) : 지난 설명회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관내에 부분적으로 협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업, 상황들이 많은데 잘 공유가 안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 주셨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 박영기 : 목적 찾는 과정을 딱딱하게 회의로 하는 것보다 워크숍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 박정근 : 참석한 분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성북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며 분야별 네트워크 조직하는 역할하면 좋겠다.
- 홍수만 :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 기구들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각 영역별로 서로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른다. 황선영, 박정근 님 말씀은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의견.
- 송민기 : 성북구에서 2016년 이후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가 이뤄져왔다. 성과와 아쉬움 병존. 그런 기반 위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수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인식, 그걸 각 분야별로 대응해서는 어렵다. 함께 모여서 통합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원칙도 세우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런 걸 하자고 협치가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그게 작동하는 방식은 거칠기도 하고, 행정의 성과를 필요로 하니까 그 쪽으로 경도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온 협력 사업, 거버넌스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나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계획 등 많은 과제와 성과가 있는데 대부분 분야별로 하고 말았다.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 홍수만 :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들이 있고 컨디션이 다르다. 각자 보는 협치의 상, 지향이 다르다. 협치로 나아가는데 있어 그런 상이함을 확인 점검하지 않으면 어렵다. 협치 기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조사중, 회의록이 대부분 비공개. 회의록을 봐야 어떤 흐름으로 봐야 알 수 있는데, 현지 진행 사업들의 경우 비공개로 되는 경우가 많다. 민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현지 진행되는 협치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협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방향성, 지향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이것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사업이기도.
- 김기민 : 지난 번 설명회 때 협치 의미에 대해 인식, 상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 유제훈 : 성북구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 구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찾아가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 박정근 : 관에서 관리하고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해보자, 그렇게 받아들였다. 좀 늦더라도 다듬고 다듬어서 완전하게 해서 가야 한다.
- 유제훈 : 분과를 나눠서 해보자.
- 김정연 : 서울시 조례상 목적.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관하고 통하는 게 없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걸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뭘 만들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 관과의 소통이 먼저인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인지 가능해야.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내부를 다진 뒤 관하고의 소통,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 김종건 : 성북구 협치조정관 배석했는데, 성북구에선 협치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협치조정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목적에 대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윤진호(협치조정관) : 제1장 제2조 정의. 1. 민관협치의 정의. 단순 의견 개선 이상. 교육, 복지, 마을계획, 도시 등 분야별 협치 사례가 있다. 공동 결정과 공동 집행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협치조정관으로서의 역할. (사건입을 전제로) 서울시 민관 협치 관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
- 김정연 :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 김종건 : 민민 협력, 민관 협치는 함께 해야 한다. 민민이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보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 박정근 : 우리가 할 일은 단체장들이 논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모셔와야 하지, 통보하고 알린다고만 해서는 안되고 먼저 기반을 닦고 분위기 잘 조성해서 기존 거버넌스 조직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 박정애 : 의사진행발언. 다 함께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다. 전체적인 맥락 이행을 듣고, 모듬 구성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놓고 던질 이야기만 딱 하자. 시간 제한을 두면 좋겠다. 한 사람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회의 목적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
- 박정애 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모듬별 토론 진행 (14:37-15:00)
- 모듬별 토론 ① (김정연, 박영기, 송민기, 서정례, 유제훈 등 참여)
 - 민간이 주도하여 민민 네트워크와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러 단체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원리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이 중복되는 직능단체와 자생 단체들이 많다. 그 단체들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성북구와 주민 생활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 '발전'은 뭐냐, 차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 모둠별 토론 ② (박정애, 이선영, 정우연, 윤정현, 홍수만 등 참여)
 - 키워드 : 연대, 공유, 협력
 - 성북구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 성북 협치 정책들을 공유하고 활동 및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모둠별 토론 ③ (김기민, 김종건, 김희자, 박정근, 전미희 참여)
 - 김종건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나. 민관 협치를 하자는 것인데. 각 분야별로 연합체가 있을 거고, 그곳에 연락을 해야 한다. 오던 안오던 일단 연락하고 안내는 해야 하지 않나.
 - 박정근 : 아무 체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연락을 하겠는가. 우리가 일단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 김종건 : 먼저 알림이 있어야 한다.
 - 박정근 :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성북구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 나온 것. 지금까지 아무 보수 없이 자기 일 하면서 하는 상황. 우리가 기반을 닦고 난 상태에서 이후에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김종건 : 그렇게 되면 손님이 되지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
 - 전미희 : 목적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 민민 네트워크, 민관 네트워크가 잘 안되고 있으니 네트워크 조직과, 그 안에서의 정보 공유라도 해보자.
 - 민주주의, 지방자치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와 평가 차원에서 협치. 협치의 목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성북구 발전은 궁극적 목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소통 기구로서의 협치.
 - 주민 주도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성북구의 발전.
 - 민민 협력은 토대다. 민민 협력 없는 민관 협치는 불가능하다.
 - 목적 : **(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은 성북구 주민이 주도하는 민민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청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목적 : (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은 성북구 주민이 주도하는 민민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청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가. 여러 단체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원리를 도출한다.
 - 나. 중복 사업 단체들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다. 성북구와 주민 생활의 발전에 기여한다.
 - 라. 성북구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 성북 협치 정책들을 공유하고 활동 및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 기타

- 함께하는 성북마당 송년회 12/9(금) 18:30 - 행사 안내 및 참여 홍보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문화의 달 영화상영 - 클라우드펀딩 모금 참여 요청
- 마을기획팀 은현기 팀장
 - 협치성북 조례 제정
 - 성북구 협치 기구로 (가칭)협치성북협의회 조직 및 구성, 운영 방법, 예산 편성 등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지원 공모사업으로 3년간 예산 지원 받아 협치 조직,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함.
- 성북구의 124개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자료 공유 요청 (홍수만-은현기 팀장)
- 오늘의 키워드 : “섭섭하지 않게”
- 2차 준비회의 일정
 - 준비위원회 회의 격주 회의 제안 (홍수만)
 - 매주 회의가 필요하다. (박정근, 박정애)
 - 2차 회의에서 매주 회의 여부 결정하자. (전미희)
 - 회의는 수요일 13:30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의견 모으고, 주1회 회의 여부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12/21(수) 13:30 고려대학교 (장소섭외 박정애 님)